

ANDREW
ROBINSON
NESSKAIN



OVERWATCH™

파 라



임무 강령



파 라 임무 강령

글
ANDREW ROBINSON

번역
HARRY PARK

그림 및 채색
NESSKAIN

식자
JIHYE SOPHIA HONG

아트 편집
LOGAN LUBERA

편집
ROBERT SIMPSON AND CATE GARY

표지
NESSKAIN

그래픽 디자이너
JOHN J. HILL

크리에이티브 자문
CHRIS METZEN, ARNOLD TSANG, BILL PETRAS, MICHAEL CHU

세계관 자문
SEAN COPELAND, JUSTIN PARKER, EVELYN FREDERICKSEN

프로듀서
RACHEL DE JONG, MICHAEL BYBEE, JEFFREY WONG

블리자드 스토리 및 크리에이티브 개발 디렉터
JAMES WAUGH



난

결단을 내려야 할
이 순간이 늘 두려웠다.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

임무일까...

... 아니면 생명일까?



15분 전...

수년 전 아누비스 시설을 인수 받은 헬릭스
시큐리티는 업그레이드를 진행하지 않았다.

그래서 최악의 상황이 일어났다.
아니, 일어나기 직전이다.

울닉 사태 이후, 오버워치가
격리했던 "창조주 프로그램"
중 하나인 아누비스가
23시에 봉인을 끈 것이다.

어머니께선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그 순간이 가장 두렵다고 하셨다.

하지만 내게는 가장
행복한 순간이다.

대장님!
이쪽입니다!

이에 헬릭스는 02시에
엔지니어링 팀을 투입해 커맨드
센터의 통제권을 되찾으려
했으나, 연락이 두절됐다.

무슨 일이
있었나?

그래서 헬릭스는
내 팀을 보냈다.

우리는 엔지니어링 팀이 아니다.
"모조리 박살 내는" 팀이다.

감시 로봇들이...
아누비스가 우리를
위협으로 감지한다며
총을 쐈습니다.

뭐라고요?



대장님. 아누비스 인공지능은 다른 운영 체제, 즉 다른 음성을 조종할 수 있습니다. 제가 작년까지 그곳 IT 부서에 있어보셔 압니다.

놈이 헬릭스 방화벽을 뚫는다면... 좋지 않을 겁니다.

어떻게 "좋지 않은지" 구체적으로 서술해 주십시오, 타리크.

기반 시설을 감염시키고 군사 공격을 감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좋지 않은" 수준은 아닌 것 같군.

이자는 제가 진정시켜서 장갑차로 데려가겠습니다.

안 돼, 마무드. 계속 간다.

신참 말 못 들었나, 살레? 지금 이라고 있을 시간이 없다. 이자의 목숨보다, 우리 모두의 목숨보다,

임무 완수가 더 중요해.

대장님?

아마리 부관의 말 못 들었나?
아이자드, 앞장서.

아주 돌아가시겠군, 파라.
전에 이야기했던 사안이잖아.

회사의 지침은 명확합니다. 소대는 임무를 따라야만 합니다.

옛 속담에 이런 말이 있지. "한 사람을 구하는 건 세상을 구하는 것과 같다."

대장님, 실제로 세상이 위험에 빠졌습니다.
세상을 저들의 목숨과 바꾸진 않을 겁니다.

칼릴 대장님?
문제가 생겼습니다.

오코로?

아누비스가...
제 시스템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뭔가 꼼짝한 일이 벌어질 겁니다.

죄송합니다...
도망치십시오.

파

오코로!

잠깐... 끔찍한 일이
벌어진다니 무슨 말이야?



아까 돌아가시겠군...
이라고 말했을 때는
농담이었는데.

조금만
버티십시오.
제가 여기서
꺼내드리겠...

아니. 임무가
더 중요해.
저들을 지키게.
그럼 저들도 자넬
지켜줄 거야.

맙소사, 설마
대장님이...
죽었어.
여기서
나가야...

안 돼. 아누비스를
쓰러뜨려야 해.
무슨 소리야?
우린 독 안에
든 쥐라고!

아누비스는
우리 팀원,
우리 가족을
죽였디...
하지만
아까는...

넌 한번도
그런 적 없잖아...
함께하겠나?

살레에겐 동기부여가
필요하다...

가족이라고, 살레.
그냥 넘어갈 순 없어.
이 임무를 끝내면
모두에게 저녁을 사겠다.

...그러자.

좋아. 이제
복수하려
가자.

끼기기각

침입자 확인,
아누비스의 대응 결정.



쿠과쿵





내 문신은 호루스의 눈,
우자트라고 부른다.

어머니도 이 문신을 갖고 계셨다.
그 사건... 이후, 난 어머니를
추모하기 위해 이길 새겼다.

대장님?

미안하다.
대장님은...
살아남지
못하셨어.

지금부턴 당신이
제 대장님입니다...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어머니는 문신이
보호의 상징이라고 했고,
난 어머니가 지키려는
대상이 나라고 생각해왔다.

하지만 틀린 것 같다.

지키는 자... 그게
바로 나였던 것이다.